동지기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점점 길어져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삼았다고 합니다.

동지는 태양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지에 왕들은 신하들에게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도장을 찍은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풍속이 이어져 법주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에서도 동지에 달력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하지에는 부채를 동지에는 달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지에 사찰에서는 새로운 기운을 통해 부처님께 가정의 행복과 평온을 기원하는 동지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불자님들께서도 부처님 전에 자기 자신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입재 - 불기 2566년 **12**월 **16**일(음 11월 23일)
  회향 - 불기 2566년 **12**월 **22**일(음 11월 29일) 동지
- **동 참 금** : **3**만원 (팥죽용 팥, 찹쌀 공양 사전 접수받습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2|12

부처님 말씀 입인년 법주사 동안거 결제 법어 / **이달의 법문** 법보 / **주지스님 법문** 고통이라는 장점 / **수행여화** 평생 행복하려면 정원을 가꾸어라 / **감로의글** 웰빙에 대한 6가지 지표 / **걸망메고** 마음은 멈추고 천천히 걸어라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생전예수재 49일기도 봉행** / **동지기도**



법보法寶

어떤 범지가 부처님께 와서 묻기를
어떤 것이 법法입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법이라 하는 것은 본래 한 번도 없는 것이 법이니라.
그러나 한 생각 일으키면 유위법도 되고,
무위법도 되느니라.
이는 곧 중생들의 업業에 따라 일체만법이 일어나고,
또 멸하는 것을 말함이니라.
그리고 법보 가운데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교법敎法으로서 반야지혜가
무명번뇌의 업장을 녹이는 것을 교법이라 하고
이법理法으로서 생사가 둘이 아닌
실상의 이치를 깨달음을 이법이라고 하고
행법行法으로서 계戒, 정定, 혜慧를 닦아 행하는 것을
행법이라 하고
과법果法이니 유위법과 무위법을 따라
과보를 받는 고로 과법이라 한다.

〈심지관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2 12 | 통권 371호



2 부처님 말씀 壬寅年 法住寺 冬安居 結制 法語
4 이달의 법문 법보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고통이라는 장점 정도 스님
12 수행여화 평생 행복 하려면 정원을 가꾸어라 현진 스님
15 감로의글 웰빙에 대한 6가지 지표 장산 스님
18 걸망메고 마음은 멈추고 천천히 걸어라 진정 스님
20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21 법주사 행사일정
22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3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24 동지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6(단기4355)년 12월호 통권 371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壬寅年 法住寺 冬安居 結制 法語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오늘이 임인년 동안거 결제를 하는 날입니다.
매년 결제 때마다 엄중하고도 비장한 각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만
아직 확철대오廓撤大悟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석 달 동안 기어이 완수해야겠다는 결심과 비상한 각오와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진실로
오늘을 맞이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불의 준비작업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도에 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옛 조사스님들과 부처님들이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라고 해서 안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기에는 大忿心, 大勇猛, 大精進 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대자유를 얻자는 것이 우리들의 염원이라면
하루빨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중에게 이르노니 무애장부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어서 나와 건곤 밖에서 큰 소리로
태평가 한 곡조를 불러 분소紛搔한 이 자리를 안정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제는 또한 확실히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미개오轉迷開悟가 성불成佛의 요체要諦일진대 어두운 진구를 탈각하고자 한다면
어찌 용맹스러운 정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진이 없는 곳에 해탈이 있을 수 없고 생사의 험한 물결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석 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수행해야 할 과업은 진실로 중대하다는 것을
결제 대중은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삼계를 초출하여 대자재大自在 대해탈大解脫 대열반大涅槃을 얻게 되는 것이며
정각을 이루어 영원의 대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커다란 작업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金자 烏자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의정이 맺혀야 한다고 하셨고
의단이 독로해서 성성적적惺惺寂寂한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두가 순수 무잡해서 더는 의심이 클 수가 없고 더는 간절할 수 없어
타성 일 편이 되면 의단이 타파가 되어서 바로 자기 본래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生死於是 是無生死
疑着話頭 如咬生鐵

생가가 이것인데 이것이 생사 없는 소식
화두를 의심해 지을 때는 생철을 씹는 것같이 하라.

우리가 수행정진修行精進에 가장 큰 험로가 된 것은 '번뇌 망상 혼침 산란심 온갖 잡다한 생각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초심자는 자세를 똑바로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 하고
이를 꽉 물고 혓바닥을 말아 입천장에 붙이고 호흡을 단전에 두며
시선을 바로 하고 용맹스럽게 화두를 들고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제 중에는 수행자 오계만 잘 지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행자 오계는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말하고,
책을 보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침, 산란심, 번뇌, 망상 등등 혼침이 사라지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사라지면 혼침에 빠져듭니다.
정말이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난공불락입니다.
너무 급하게만 해도 안 되고 늦춰서도 안 되는데 거문고 줄처럼
팽팽하게 지혜와 용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가귀감에는 이 일이 마치 모기가 강철로 된 소에게 덤벼들 듯 덮어놓고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 놓고 한번 뚫어 보면
몸뚱이째 사뭇 들어갈 때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거듭 위에서 말한 뜻을 맺어서 화두를 참구하는 이로 하여금
뒷걸음치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옛 어른이 이르기를

참선하려면 뚫으라.
조사관을!
오묘한 큰 깨침은 마음 길 끊어야지

성성적적한 화두일념으로 객진 번뇌인 망상을 항복 받고 주인공인
자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성은 내외명철內外明徹 여정유리내함보월如淨瑜璃內含寶月
투명한 유리그릇에 보배 달을 넣고 본다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智는 白日과 같고 慧는 朗月과 같아서 지혜는 항상 명랑하지만,
외부로 진경에 주착하여 망상의 부운개복浮雲蓋覆함이 되어서 명랑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如何히 大惡하고 知見이 高明한 것 같아도 實地境界에 있어서
熟眼時에 如前暗黑하면 이는 妄識의 變動이요. 實惡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寤寐一如境地에도 도달하지 못하고서 頓惡見成이라고 自負한다면
自誤 誤人의 大罪過이며 修道過程에 있어서 可恐할 病通이라고 했습니다.
公案을 타파하고 自性을 徹見하면 三身四智를 圓滿證得하고
全機大用이 一時에 現前하고 殺活自在하여 縱橫無盡한 妙法中 妙法인 것입니다.
眞空이면서 妙가 있는 淸淨法身의 眞體를 깨닫는 것입니다.
참선요지에 허운 말씀은 禪修行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선수행에 대한 간명한
先決條件 話頭 話尾에 대한 訟話頭 念話頭 觀話頭 參話頭 念佛是誰 參禪에 대한
先決條件의 간략한 말씀을 짚어 보겠습니다.

歇卽菩提 攀緣萬緣放下一念不生

이 구절의 말과 같이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참선은 말뿐이고 성공할 수가 없다.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이다.
마음에 오염을 제거하고 자기 성품의 참모습을 실답게 보는 것입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망상과 집착이며 자성은 바로 如來智慧 德相입니다.
다만 여러분과 나는 무량겁 이래로 미혹되어 생사윤회의 바다에 빠져서 오염된 지 오랩니다.
단박에 망상을 벗어나 참된 본성을 볼 수가 없으며 그런 까닭에 참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선의 선결 조건은 망상을 없애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망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수도 없이 많지만

歇卽菩提

쉬면 곧 깨닫는다.

쉽만큼 간단한 것을 다시 없을 것이다.
온갖 인연에 생각 망상을 죽 끓듯 해서는 참선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水流竟歸海 月落不離天

흐르는 물은 필경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고
달이 떨어져도 하늘을 여의치 않는다.

戒의 그릇이 튼튼해야 호수처럼 고요한 선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선정의 물결이 고요해야 만이 지혜의 달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驕慢塵中藏般若 人我山上長無明

교만과 티끌 먼지 속에 지혜가 감추어지고
아만심의 산봉우리에 무명이 자란다.

輕他不學蹤踵老 臥病辛吟恨不窮

잘난 척하고 배우지 않고 늙게 되면
병들어 신음하고 한탄만 하게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은 결심으로 모인 대중 여러분은 일치된 한마음 한뜻으로
험하고도 무서운 관문을 돌파하여 해제되는 날 첫 새벽에 모두 함께
성불의 법좌에 빠짐없이 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지스님 법문

고통이라는 장점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 고통 없이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고통을 싫어하며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으며 불필요 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합니다.
고통은 행복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고통도 내 삶의 일부이기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가을이 더 바쁘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오전 내내 단풍나무 아래의 낙엽을 쓸며 그 주변을 정리했다. 늦가을 찬 서리가 내린 후 곱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우리 도량에 활엽수들이 여럿 있지만, 단풍나무만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주지 못한다. 다른 낙엽들은 그날그날 쓸어버리는 성미인데 단풍잎은 가을 축제가 끝난 뒤 한꺼번에 쓸어 담는다. 그러니까 잎이 물들고 낙엽 지는 것을 한동안 감상하다가 날을 잡아 청소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단풍나무 정원을 정리한다는 것은 가을이 끝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니 이제 더 떨어질 잎새도 없다. 감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밤나무, 참나무도 홀가분한 맨몸이 되었다. 숲은 낙엽 지는 조락의 시간을 건너 어느새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가을 수채화를 그렸던 계절에게 전송 인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올해는 단풍나무 근처에서 자주 머물며 차도 마시고 음악도 즐겼다. 다른 때보다 유독 단풍이 찬란하고 선명했다. 10년 전 이 묘목을 심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새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물을 이렇게 공들인 것에 대한 보답이 있다. 나무의 생애와 견주면 우리는 얼마나 빈약하고 인색한가. 이익에 따라 서로의 표정을 바꾸면서 신의를 저버리기 일쑤다. 나무처럼 세월을 견디며 차곡차곡 덕을 쌓고 정을 나누는 일이 바른 삶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일전에 베트남 달랏DaLat 지역을 다녀왔다. 별 기대 없이 동료들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 올 계획이었는데 뜻밖의 풍경에 매료되어 일정 내내 기쁨으로 충만했다. 선선하고 온화한 날씨에 사계절 꽃이 피고 숲과 정원이 있는 고원의 도시였다. 그래서 나의 시선은 온통 꽃과 나무에 머물렀고 식물들과 교감하는 설레는 시간이었다. 아직도 달랏의 신비로운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기회를 만들어 그곳의 벚꽃은 어떤지, 때를 맞추어 또 다녀오고 싶다.

아침 산책을 하며 남국의 열대림에 소나무 숲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마치 한국의 산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꽃들과 나무들이 가까이 있어서 이국적이지 않았다. 동백나무, 감나무, 은목서, 천일홍도 보였고 심지어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어 놓았다. 무엇보다 달랏은 채소와 화훼농가가 즐비하여 꽃의 도시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주었다.

이곳이 이렇게 변모한 배경에는 달랏대학 고故 김진국 교수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그는 90년대 초반 달랏에 정착하여 산비탈을 개간하여 다양한 품종의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기술을 현지인들에게 전수했다. 밤이 되면 달랏은 비닐하우스 불빛으로 장관을 이루는데, 불빛으로 개화기를 조절하는 선진 농법이 보급된 결과라고 한다.

한 사람의 열정과 집념은 이처럼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의 연구와 노력으로 달랏을 거대한 정원도시로 바뀌었고, 정부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현지에서는 '파파 김'으로 부르며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들었다. 김교수는 달랏 사람들에게 삶의 정원을 선물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속담에 '하루 행복 하려면 술에 취하고, 한





달 행복 하려면 연인을 만나고, 평생 행복 하려면 정원을 가꾸어라.'는 표현이 있다. 흙을 만지며 식물과 호흡하는 일만큼 활기차고 경이로운 것도 없다. 흙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을 땅 위에 엎어놓았더니 점차 소생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하므로 대지에 기대여 식물과 더불어 생활한다는 것은 생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땅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고 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대지의 질서를 등지면 사람은 병들 수밖에 더 있겠는가. 행복한 삶을 설계하려면 정원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일은 늙는 것이 아니라 녹스는 삶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고 탐구해야 한다. 이웃에 사는 칠순의 노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며, 마지막 인사처럼 헤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매사 최선을 다하며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다 덧붙였다. 그의 삶은 결코 녹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슬에 젖은 국화 몇 송이를 잘라 와서 식탁에 놓았다. 꽃이 있으면 혼자 앉아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는 느낌이다. 지인들에게 달랏 여행에서 배워 온 아침 인사를 건넸다.

"짜오 무이 싸잉!"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아침이란 뜻이란다. 내일은 온전히 보장할 수 없으니 오늘 다가온 아침은 가장 귀한 하루일 것이다.

감로의 글

웰빙에 대한 6가지 지표無說說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웰빙만 말하고 웰다잉을 잊어서는 아니 될 요소다. 질 좋은 노동은 좋은 휴식에서 생성되듯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은 결국 아름답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궁극적 인간의 위대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는 결국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이 도리를 깨우치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갈 지혜와 더불어 배짱이 있어야겠다.





웰빙 개념으로 유명한 다음 5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행복하다'는 것으로,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PERMA'(페르마 5대 지표)가 있다. 이것은 '긍정(Positive)심리학'이라는 자아실현 이론을 주창한 마틴 셀링맨(Martin E. P.Seligman) 의해 제안되었다.

①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감정)** : 즐겁다, 기쁘다, 충실감, 자신감이 있다 등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는지를 측정한 지표이다. 수면이나 식욕 등 신체가 충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실한 감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Engagement (무언가에 몰입, 몰두)** : 사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다. 매사에 몰입,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수록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③ **Relationship (사람과의 좋은 관계)** : 긍정적인 인간관계(positive relationship)의 지표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④ **Meaning and Purpose (삶의 의미나 목적)** : 인생이나 일에 의미나 목적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자신의 존재나 역할, 일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한다.

⑤ **Achievement or Accomplishment (달성 · 성취감)** : 일의 달성, 설정한 목표의 성취감은 긍정적인감정을 일으키는 기초가 된다. 또 성공체험이나 많은 성취감을 얻는 것은





인생을 충실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백세 장수 시대에 오래 산다는 게, 재앙인지 축복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⑥ **Financial Well-being (파이낸셜 웰빙)** : 즉 경제적으로 만족하느냐의 경제 행복도이다. 안정적 수입을 얻고 있는지? 또는 말년에 쓸 자산은 확보하고 있는지? 등의 요소도 중요하다. 오늘날 인간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6가지 항목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50% 이상을 체크해 본다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이 되리라.

또한, 잘 살아간다고 함은 죽음을 잘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웰빙만 말하고 웰다잉을 잊어서는 아니 될 요소다. 질 좋은 노동은 좋은 휴식에서 생성되듯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은 결국 아름답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궁극적 인간의 위대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돈과 권력이 많을수록 잘 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

생사生死와 열반涅槃, 번뇌煩惱와 보리菩提, 중생衆生과 부처는 결국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이 도리道理를 깨우치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갈 지혜와 더불어 배짱이 있어야겠다.

마음은 멈추고 천천히 걸어라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프랑스 남부 보르도 지방의 명상 공동체
(플럼 빌리지 자두마을) 그곳은 조용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이곳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와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아픔의 상처도 함께 나눈다.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이곳을 이끄는
이는 틱낙한 스님이다.
그는 1942년에 베트남에서 출가하였고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님이자
평화운동가인 스님은 우리 곁에 없다 몇 년 전
입적에 드셨다. 그가 처음으로 프랑스의
명상공동체를 창설하였고, 직접 많은 방문자를
맞이하는 이곳은 언젠가부터 소리 없는 세계의
변화를 갈구하며 서서히 많은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가 명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베트남전 때
평화운동을 통해 실천적인 종교운동을 하였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평화운동을 통해
서로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을 주창하였다.
고국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서구 여러 나라에
자신의 명상 수행을 통한 인간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명상 수행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의 명상 수행 중 걷기 명상이라는 수행은
많은 유럽인에게 감명을 주었고,
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언제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밥을 먹을 때나 걷을 때 항상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참모습이 보인다. 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늘 다른 생각에 빠져서 현재 자신이 하는 행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힌다.
자그마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 다짐을 통해서 변화하면,
세상이 따라 변한다. 이것이 그가 바라는
명상을 통한 깨우침의 목표다.
실제로 틱낙한 스님은 이곳에서 많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참여운동을 통한 불교의 보살행을
직, 간접으로 설파한다.
서구의 풍요로운 생활에서 오는



개인의 소외감으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서구인들에게 그들의 근기에 맞게 틱낙한 스님은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같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많은 서구의
사람들이 틱낙한 스님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 빈자리를 찾아가지만, 종교로서의 명상과는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은 서구인들이 기독교를 불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에 대한 경외감에서 오는
자아 상실을 찾고, 자신의 내면을 바로 보고
자신을 바꾸는 알음알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유럽인들의 뿌리에 남아 있는 기독교의 마음은
변화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유럽인들에게 종교적인 적극적 신념을
심어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을 통한 내면의 성찰을 하게 하고
스스로의 깨우침을 유도한다.
부처님께서도 각기 다른 방편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듯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는 우리의 과제다.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가치관이 다른
모든 이에게 일률적인 방법보다
틱낙한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얻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 갈 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25일 초하루



11월 8일 동안거 결제



11월 13일 천년의 향기 7차



11월 15일 동안거 포살법회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눈꽃과 함께하는 법주사

마음도 함께 상쾌해지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악업을 지은 사람도
지금 다시 악업을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법구경

2022. 12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1.8 약사재일	2 9	3 10 광명진언기도 어린이법회
4 11	5 12 다도반법회	6 13 합창단법회	7 대설 14	8 15 보름	9 16	10 17 어린이법회
11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2 19	13 20	14 21	15 22	16 23	17 24 다라니독송기도 관음재일 법주회 법회
18 25	19 26 다도반법회	20 27	21 28	22 29 동지(06:48)	23 12.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4 2 어린이법회
25 3 신중기도회향 크리스마스	26 4	27 5	28 6	29 7	30 8 약사재일	31 9 어린이법회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12**월 **3**일(음 11월 10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2년 **12**월 **17**일(음 11월 24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법주사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신행信行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의 가장 적합한 실천행으로써
불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할 의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윤2월에 맞춰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인연을 통해 법주사 불자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통해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복을 받는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봉행일정**

- 입재 : 2월 20일 (음력　2월　1일) 월요일
- 1재 : 2월 26일 (음력　2월　7일) 일요일
- 2재 : 3월　5일 (음력　2월 14일) 일요일
- 3재 : 3월 12일 (음력　2월 21일) 일요일
- 4재 : 3월 19일 (음력　2월 28일) 일요일
- 5재 : 3월 26일 (음력 윤2월　5일) 일요일
- 6재 : 4월　2일 (음력 윤2월 12일) 일요일
- 회향 : 4월　9일 (음력 윤2월 19일) 일요일

■ **동참금** : 1인 100,000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